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음 11월 21일) 제170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중기 10곳 중 9곳 “내년 경기전망 비관”

2779곳 중 87.8%가 응답 “내수회복 불확실성이 내년 국내경제 영향 미쳐”

중소기업 10곳 중 9곳(87.8%)이 내내의 경기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외경제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예상하는 2017년 경제성장률은 2.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기 2779곳 중 87.8%가 내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48.2%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39.6%는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는 83.1을 기록하며, 2014년(94.5), 2015년(92.9), 2016년(86.2)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SBHI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내년 국내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칠 요인으로는 내수회복 불확실성(54.9%)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대선 등 정치이슈(12.9%), 미국 금리인상(9.5%), 원자재가격 불안정(8.8%),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경제기관 등의 전망은 최순실 사태와 연말 탄핵 정국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정치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력 채용 계획은 중소기업의 18.1%(평균 3.4명)만이 있다고 답했고,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업체가 81.9%(각각 45.0%, 36.9%)에 달했다.

설비 투자 계획은 7.5%, 기술개발투자계획은 6.2%만이 있다고 응답해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들이 설비 및 기술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현준 본부장은 “수출, 내수, 투자위축 등 지금의 경제상황은 출구가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형국”이라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별 경제주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GDP기준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해 OECD(국제협력개발기구)의 2.6%와 KD(한국개발연구원)의 2.4%, 한국은행의 2.8% 등의 국내외의 주요 경제정책 관련기관의 전망치보다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홍 기자

박 대통령 대리인 “탄핵사유 인정 못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다루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은 16일 탄핵소추 사유 전부를 다루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종환 변호사 등은 이날 현재에 답변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며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은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선 헌법상 생명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면서 “추후 변론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관심을 모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가 참여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뉴스3

“황교안은 박근혜다 탄핵 조속 인용하라”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국역 네거리에서 제8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하다 경찰에 막히자 자리를 잡고 정권퇴진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8차 광화문 촛불집회

시민 발언·소등 퍼포먼스 진행 현재 앞 100m까지 행진 이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8번째 주말 촛불집회가 지난 17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150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 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전 7주 간 이어진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 가결, 즉각 퇴진의 외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은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를 향한 빠른 탄핵 인용과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퇴진 등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8번째 이르는 주말집회에도 광화문, 청계광장, 시청역 일대까지 본집회 시작 시간(오후 5시) 기준으로 약 30만 명(주최 측 추산 연인원), 본집회가 끝난 후엔 60만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본집회는 당초 종료예정 시간(6시30분)보다 다소 늦은 6시55분께 끝났다. 본집회에서는 시민 자유 발언, 현재의 신속 탄핵을 촉구하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인 단원고(당시 2학년8반) 고(故) 이재욱君的 어머니 홍영미씨의 무대 발언, ‘소등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홍씨는 “박근혜는 거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탄핵사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박근혜는 아직도 정권을 못차리고 있고 황교안은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은 2014년 4월16일 당시 박근혜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직권남용으로 세월호 수사를 가로막고 심지어는 인사보복까지 했던 아주 나쁜 놈”이라며 “국무총리가 된 직후부터는 계획적, 노골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6시40분께에는 ‘암흑 퍼포먼스’도 어김없이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이번 1분 소등행사에 대해 “어둠의 겨울광화문을 끝내는 촛불이 되자. 곧 새벽이 오는 줄 알았지만 어둠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혼돈의 시간”이

라고 설명했다.

본집회를 마친 추최 측과 시민들은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7시부터 행진에 돌입했다.

시민들은 “빠른 탄핵 인용”, “황교안 사퇴”, “박근혜 구속” 등을 외치며 청와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은 기존 코스인 청와대 외에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와 삼청동 총리공관 100m 앞(안국역 4번 출구·우리는행산정동영업점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현재 앞 100m 이내인 재동초등학교 인근 북촌로 31길 및 민수옥 앞과 총리공관 100m 이내인 삼청로 카페골목까지의 행진은 불허했다.

현재 앞 집회는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 총리공관 앞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만 허용됐다.

시민들은 오후 8시가 넘어가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와 마무리 집회에 참가하거나, 청와대·현재·총리공관 현장에 남아 시위를 이어갔다.

전북에까지 이어간 촛불 “박근혜를 구속하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찾아볼 것이라 예상됐던 촛불이 이번 주말에도 전북에서 활활 타올랐다.

지난 17일 전주시 관동로에서 열린 ‘제6차 전북도민총궐기’에는 오후 7시 현재 주최 측 추산 3000명(경찰 추산 12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와 즉각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한층 쌀쌀해진 날씨에 시민들은 겨울 외투와 장갑, 목도리 등을 걸치고 차곡차곡 자리를 앉았다. 집회를 주최한 전북시국회의는 찬 바닥에 앉은 시민들에게 방석과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며 용기를 북돋웠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집회는 시국발언과 문화공연, 대형공을 이용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본 회의를 마치고 시민들은 전주 풍남문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김민근 기자

동국의 향과도시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 덕유산 상고대

MUJU COUNTY 무주군

무주에 겨울이 왔습니다.

덕유산 깊은 골을 수놓았던 단풍도
굽이쳐 흐르던 물도, 수줍던 초록도 모두
살포시 내려앉은 겨울 앞에서
한자락 추억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오르는 걸음마다
맞잡고 함께 하는 가슴마다
아름다운 겨울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 muju

무주군관광안내 063)324-2114, 322-2905 | 무주덕유산리조트 063)322-9000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063)322-3174 | 무주반디랜드 063)324-1188 | 덕유산레저바이크텔 063)322-2882